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해외서도 'Amazing'... 주목받는 채널A 리브랜딩	3면	한국 선수단 '금빛 선전' 생생히 전한 DAMG 취재팀	4면	100년 동아 헤리티지를 모자에 담다... '동아일보X오가프 볼캡' 무신사 단독 판매
----------------	----	---------------------------------	----	--------------------------------	----	---



체크인한양 '용천루' 세트장



체크인 한양



세계 각국 인기 신드럴라

DIVE INTO



CONTENT UNIVERSE!

2024년 하반기 드라마-예능 기대작 연이어 출격



결혼해YOU



무한대W



2024년 하반기 채널A의 기대작들이 연이어 선보인다. 조선 한양의 초호화 호텔에 입사한 꽃청춘들의 로맨스를 그린 (체크인 한양)과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연하 재벌남과 헤어지려는 극현실주의 여성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새벽 2시의 신데렐라), 그리고 순도 100% 섬 총각의 로맨스 (결혼해YOU)까지 3편의 드라마가 시청자들과 만난다.

예능에서는 채널A의 독창적인 IP를 토대로 한 콘텐츠 유니버스가 펼쳐진다. 강철부대 시리즈의 첫 여성 특집 (강철부대W)와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담아내는 결혼을 꿈꾸는 어른들의 연애 이야기, 그리고 (금쪽같은 내 새끼) 제작진이 배우 신애라와 의기투합한 (애라원(가게))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드림캐버스 스튜디오에 지은 초호화 객주 '용천루'

(체크인 한양)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초호화 객주 '용천루'에서 펼쳐지는 꽃청춘들의 로맨스를 그린 사극이다. 신분을 숨긴 조선의 MZ들이 '용천루'에 인턴으로 입사해 정식사환(정규직)이 되기까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도 담겼다. 제작진은 드라마의 핵심

공간인 '용천루'를 구현해 내기 위해 상상력을 총동원했다. 2월 문을 연 동아미디어그룹의 드라마세트장인 드림캐버스 스튜디오에 용천루를 짓고 디지털바, 뷰티살롱, 카지노, 퍼스널 쇼퍼 서비스 등 현대 호텔에서 볼 법한 서비스를 구현했다.

(체크인 한양)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은 스튜디오D CP는 "조선시대 청춘들의 도전과 성장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이라며 "입체적인 인물들의 충돌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권력 다툼은 긴장감과 재미를 더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24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되는 (새벽 2시의 신데렐라)는 남자친구가 재벌가 막내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적인 이별을 택하지만, 완벽한 연하 재벌 남친은 그런 그녀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는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신현빈과 문상민이 로맨틱 코미디의 클리셰를 파괴하는 새로운 스토리의 주인공을 맡았다.

(결혼해YOU)는 올해 상반기 최고의 '빌런남'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이이경이 인생 목표에 결혼이란 없

는 섬 총각을 맞아 비혼주의 7급 공무원과 만나 펼치는 청정 코믹 가족드라마다. 제작진은 "섬마을의 만능 일꾼이자 순수한 섬 총각이 결혼 매칭 프로젝트의 참가자로 선정되며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유쾌한 웃음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무한대로 확장하는 채널A의 '콘텐츠 유니버스'

채널A 대표 IP를 만든 제작진들의 새 예능도 연이어 시청자를 찾는다. 밀리터리 서바이벌의 원조 강철부대는 최강 여전사를 가리는 여군 특집 (강철부대W)로 10월 새롭게 진격한다. 제작진은 뛰어난 여군 대원들을 모으는데 각별히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해병대, 군사경찰특임대, 독거미부대-여군특임중대, 해군 등 국내 최정예 부대 출신 여군들이 출연해 치열한 전투와 경험을 선보인다. 또 제작진은 포복 구간, 길이, 군장, 탄통의 무게 등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며 여군 참가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미션도 새롭게 준비했다.

(강철부대W) 연출을 맡은 신재호 스튜디오E PD는 "남성의 영역이라 여기는 군대, 그리고 군인이 벌이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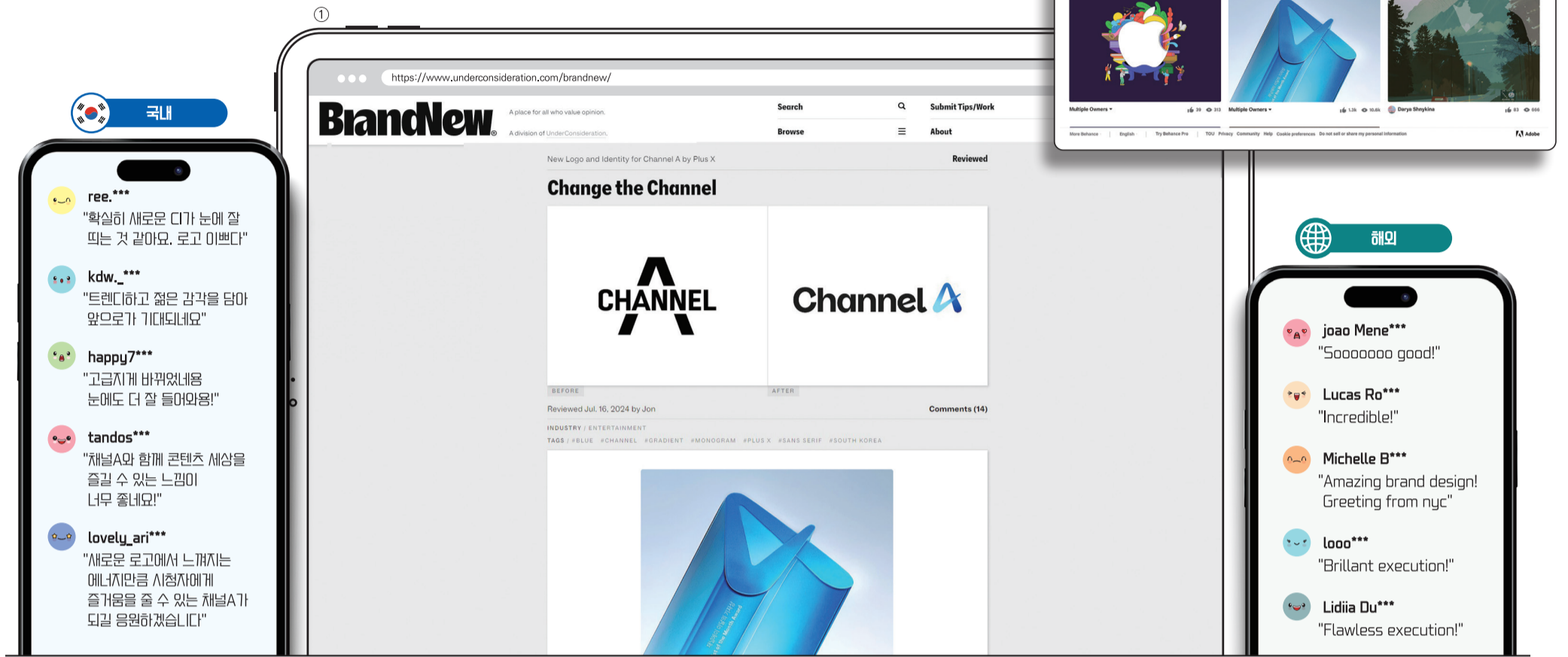
결의 주체가 여성일 때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자주 상상하고 그려봤다"며 새로운 도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PD는 "여군이라 약할 것이라는 댓글들이 있지만 장담컨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성별을 떠나 자신을 강한 군인으로 정의하는 참가자들이 극한의 미션을 헤쳐 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통해 기존 강철부대 시리즈와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애 예능의 원조인 (하트시그널) 제작진은 인생 연인을 찾아 결혼을 꿈꾸는 남녀들의 리얼한 연애를 선보인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풋풋하고 설레는 연애를 통해 순정만화 같은 사랑을 보여준 제작진들은 이번에는 낭만과 현실을 오가는 본격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금쪽같은 내 새끼)의 제작진과 배우 신애라가 함께 기획한 국내 최초 테라피 예능 (애라원(가게))도 하반기 중 공개된다. 신애라가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초청해 각자의 테라피 비법을 공유하고 힐링하는 콘텐츠다.

해외서도 'Amazing'... 주목받는 채널A 리브랜딩

“트렌디하고 현대적...채널A의 전진하는 모멘텀을 강렬하고 활기찬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전달”



① 브랜드 플랫폼 (BrandNew)에 소개된 채널A 리브랜딩. ② 채널A 리브랜딩이 (Behance) 베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지난달 공개된 채널A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CI)와 아이덴티티가 국내는 물론 해외 디자인 업계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디자이너들과 해외 누리꾼들은 채널A 리브랜딩 프로젝트에 “훌륭한 디자인”, “트렌디하고 유행을 선도한다” 등의 찬사를 보냈다.

채널A의 이번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브랜드 리뉴얼 정보를 제공하고 리뷰하는 플

랫폼 <BrandNew>에 소개됐다. <BrandNew>는 글로벌 해외 기업을 위주로 소개하는 곳으로, 한국 기업을 소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BrandNew>는 브랜드 디자인 업계에는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새로운 채널A의 로고에 대해서는 “트렌디하고 매우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밝고 경쾌하며, 그라데이션 시스템을

통해 생동감을 준다”고 했다. 키 비주얼인 한붓그리기 콘셉트를 적용한 새로운 채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번 리브랜딩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며 “끝없이 이어지는 콘셉트의 움직임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아름답게 전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리브랜딩을 “채널A의 전진하는 모멘텀을 강렬하고 활기찬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전달한다”고 총평했다.

<BrandNew> 사용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한 사용자는 “훌륭한 작업이다. 경의를 표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BrandNew>가 실시한 회원 투표에서 채널A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디자인은 90%가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또 이번 리브랜딩은 어도비(Adobe)가 운영하는 플랫폼 <Behance>에서 ‘Best of Behance’ 프로젝트로 선정돼 소개됐다. <Behance>

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과 기업들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이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영향력 있는 사이트다. 채널A 리브랜딩 결과물은 서체에 집중한 디자인 레퍼런스를 소개하는 해외 플랫폼 <Fonts in use>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디지털노베이션팀 이윤태

“리브랜딩 명함 신청하세요!”...사원증도 교체

커피차 이벤트-여의도 IFC 옥외 프로모션 8, 9월 진행



“리브랜딩 명함 신청하세요!” 7월 실시된 채널A 리브랜딩으로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명함 디자인도 전면 교체됐다. 새 명함은 채널A의 시그니처 컬러인 ‘프라이머리 블루’ 컬러를 사용해 통일감을 주고 다채로운 그라디언트 패턴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약하자는 의미가 담긴

‘Z path’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풍부하고 입체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채널A 구성원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명함의 디자인 패턴은 총 72가지다. 가로형, 세로형을 먼저 선택한 뒤 앞면 디자인 4개, 뒷면 디자인 9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만의 특별한 명함이 완성된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고를 수 있는 재미를 준 것이 이번 명함의 특징이다. 채널A 리브랜딩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새 명함은 지니어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사원증 역시 새 CI에 맞춰 9월 경 교체된다. 사원증 앞면은 새 슬로건 ‘PLAY THE NEXT’를 담고 역시 Z path 디자인을 녹

여했다. 뒷면에는 사원들의 사진과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출입·방문증 및 부서 명패 등에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CI가 적용될 예정이다. 채널A는 이번 리브랜딩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8월 13일에는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오

프스튜디오 앞에서 채널A 리브랜딩과 하반기 방영 콘텐츠를 알리는 ‘채널A 콘텐츠 카페’ 행사가 열렸다. 9월 초에는 여의도 IFC 파노라마 로드에 채널A 새 CI를 알리는 옥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정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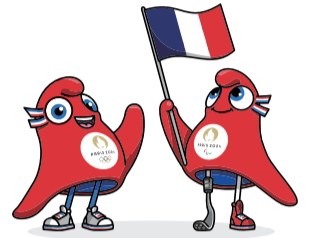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2024. 8. 16. 금

① 7월 25일 파리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동아일보 취재팀. 왼쪽부터 김배중 임보미 강홍구 이현재 기자. ② 7월 31일 올림픽 수영 경기가 열린 파리 라데팡스에서 해외 취재진과 함께 경기 모습을 촬영 중인 동아일보 양희성 기자(사진 왼쪽). ③ 8월 10일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한국 대표팀을 만난 채널A 김태욱(뒷줄 왼쪽), 박찬기 기자(뒷줄 가운데).

한국 선수단 '금빛 선전'에 더욱 뜨거웠던 파리 올림픽 현장의 감동 생생하게 전한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

동아일보-채널A 파리 올림픽 현장취재팀 취재기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치르는 프랑스 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코로 뒤덮인 2021년 도쿄 올림픽, 일반인들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버블'에 갇힌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달리 2024년의 파리는 '모두에게 열린 경기(Games Wide Open)'라는 대회 슬로건답게 도시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센강을 따라 펼쳐지는 에펠탑, 콩코드 광장, 앙발리드, 그랑 팔레가 곧 그 자체로 올림픽이었습니다. 동아일보(이현재·양희성·강홍구·임보미·김배중 기자)와 채널A(김태욱·박찬기 기자) 파리 올림픽 취재팀은 3주 넘게 그 현장을 누볐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취재팀의 파리 취재는 돌발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개회식 현장에 나간 강홍구, 임보미 기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습니다. 앞뒤로 우산을 받쳐지만 장장 4시간의 개회식이 끝난 뒤 두 기자의 노트북은 결국 회색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후발대로 합류한 김배중 기자가 예비용 노트북을, 그것도 2대나 챙겨오지 않았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김태욱 기자는 논란이 된 센강의 수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삼엄한 보안을 뚫고 센강의 부표 위에서 직접 강물을 떠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파리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따냈지만, 취재 기자들의 메달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이현재 기자는 한국 선수단이 5개 종목 전관왕을 차지한 양궁을 비롯해 펜싱, 배드민턴 등에서 10개의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을 취재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취재하겠다는 당찬 출국 포부를 밝힌 김배중 기자는 동메달 1개

(자유형 400m 김우민)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담당하던 김배중 기자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현재 기자가 바통을 이어받자마자 태권도에서 연이틀 금메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림픽 전에 친선선수촌 취재만 10번을 다녀온 양희성 기자는 유도 남자 100kg 초과급 준결승에서 김민중(24)이 한판승을 거둔 직후 양 기자를 향해 달려오는 환희의 순간을 생생히 렌즈에 담았습니다. 김태욱 기자는 항상 취재를 나가기 전, 작은 간식과 한국 선수단 배지를 '비밀 무기'로 챙겼습니다. 보안이 삼엄하고, 수많은 돌발 상황이 펼쳐지는 올림픽 현장에서 작은 선물 하나가 분위기를 풀어준다는 것을, 그래서 더 좋은 화면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 문입니다. 또 선수들 인터뷰를 위해 한 두

시간은 예사로 대기해야 했던 김태욱 기자와 박찬기 기자는 '함께 걷기만 해도 사랑이 샘솟는다'고 알려진,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인 알렉산드르 3세 다리를 수십 번 함께 건넜습니다. 김 기자는 "그래서 박 기자와 더 친해졌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이기에 가능한 현장들도 많았습니다. 이현재 기자는 전 세계 8개국 양궁팀을 이끄는 한국인 감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고, 임보미 기자는 장대높이뛰기 황제 야먼드 듀플랜티스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강홍구 기자도 세르비아와 미국의 농구 준결승에서 소수의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현장 취재 티켓을 획득해 미국프로농구(NBA)의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한눈에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은 동아미디어그룹 취재팀과 수시로 만나 든든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조 특파원 덕분에 이현재 기자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23박 24일의 파리 올림픽 취재를 마친 동아미디어그룹 취재팀은 이 기사 송고를 끝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7시간이라는 시차의 벽이 녹록지 않았지만, 에펠탑에서 기적을 노래하는 셸린 디옹의 모습은 아마 평생 잊기 어려울 겁니다. 멋진 이야기는 얼굴을 마주하고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 곧 만나뵙겠습니다.

파리=편집국 스포츠부 강홍구
파리=보도본부 문화스포츠부 김태욱

카메라 테스트부터 실전 PT까지...“미러클랩 맞춤형 교육에 발표 스킬과 자신감 상승”

AD본부 구성원들, 스피치-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① AD본부 구성원들이 7월 17일 동아미디어센터 미러클랩 스튜디오에서 스피치 강의를 듣고 있다. ② 스피치 이론 강의를 맡은 미러클랩 한정연 부장. ③ 모의 발표를 하고 있는 AD본부 미디어기획팀 이승혁 매니저.

AD본부 소속 구성원 8명을 대상으로 한 미러클랩의 스피치 교육이 7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AD본부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내부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사내 강사의 역량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스피치 교육 과정은 최근 홍보사업과 행사대행,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등

각종 외부 사업 입찰 참여가 늘어나면서 구성원들의 프레젠테이션(PT) 스킬 향상이 필요하다. AD본부의 요청에 따라 편성됐다. 고객사와의 1대1 미팅을 통해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과거 방식에 익숙했던 AD본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PT는 사업 수주를 위한 필수 능력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기획팀은 이번 교육에 6명이 참여했다.

미러클랩의 스피치 교육은 1회 이론 교육과 3회 실습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론 교육에서는 PT의 기본원칙, 복식호흡, 발성법 등을 학습했다. 이어 실습 교육에서 발성 연습, 끊어 읽기, 발음·자세 교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도 이뤄졌다. 마지막 실습 교육에서는 실제 입찰 PT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모의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혔다. 특히 카메라 테스트는 처음엔 매우 어색했지만 자신

의 발표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교정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PT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적인 능력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발성과 발음 교정을 통해 전달력과 표현력이 크게 향상됐다. 수강생들은 “내 모습을 카메라로 직접 모니터링 하며 표정이나 시선 처리 등을 고쳐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고, 실제로 미디어기획팀 이승혁 매니저는

교육 직후 이뤄진 외부 프로젝트 PT에 참여해 입찰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AD본부는 이번 스피치 교육에 앞서 1월 인사이드데이 연사로 나섰던 경영전략실 이샘물 팀장과 김상하 X-스페이스팀장을 강사로 초청해 본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와 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강연도 진행했다.

AD본부 미디어기획팀 이대우



- ① 동아일보의 원형 로고가 박힌 '동아일보x오가프 볼캡'
- ②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비보도)'를 감각적인 디자인의 서체로 표현한 상품
- ③ 경기 안산에 있는 동아일보 인쇄 공장에서 촬영한 '동아일보x오가프 볼캡' 착장 사진
- ④ '스쿱 헌터(Scoop Hunter·특종 사냥꾼)'를 새겨넣는 등 4종으로 마련한 상품



100년 동아 헤리티지를 모자에 담다... '동아일보x오가프 볼캡' 무신사 단독 판매

국내 언론사·패션 브랜드 협업 첫 사례...오가프 "동아일보 헤리티지는 MZ세대가 선호하는 뉴트로 트렌드"

1920년 창간한 동아일보와 2020년 태어난 패션 브랜드 '오가프'가 1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콜라보레이션 모자를 출시했다. 국내 언론사와 패션 브랜드가 협업해 상업 제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그동안 독자 대상으로 제작하던 굿즈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일반인들이 구입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로 목표를 세웠다. 동아일보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빈티지 패션 브랜드들에 협업을 제안했고, 오가프가 화답했다.

총정로 사육을 방만한 오가프 디자이너는 동아일보의 청록색 원형 로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창간 당시부터 사용한 로고로, 한자 東(동녘)이 가로세로로 반복된 형태이며 45도로 기울여 보면 亞(아)자

도 보인다"는 설명에 오가프 디자이너는 "이런 헤리티지가 요즘 MZ세대가 선호하는 뉴트로 트렌드"라며 동아일보 로고를 모자 전면에 걸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동아일보 로고와 창간년도인 '1920'을 사각형 와펜에 넣어 클래식함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 탄생했다.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비보도)', '스쿱 헌터(Scoop Hunter·특종 사냥꾼)' 등 언론 관련 용어와 '동아비즈니스리뷰'를 의미하는 'magazine dbr'을 감각적 디자인의 서체로 새긴 상품도 나왔다.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모델 착장 사진도 경기 안산에 있는 동아일보 윤전기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신문 인쇄 시설을 본 촬영팀 모두가 윤전기라는 대형 기계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

는 '아우라'를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사진을 모아 놓은 '룩북(LookBook)'은 동아일보를 엮어 크기로 줄여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모자의 유통 채널을 고민할 무렵에는 무신사로부터 단독 판매 제안이 들어왔다. 오가프를 담당하던 무신사 MD가 이번 협업 소식을 듣고 "100년 넘는 신문사와 빈티지 의류 브랜드의 협업이 신선하다"며 "무신사 에디션으로 판매하자"고 한 것. '무신사 에디션'은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무신사 공식 인증 마크다. 모델 착장 영상과 사진, 이번 협업의 의미 등을 소개한 '쇼케이스' 온라인 페이지도 특별히 제작돼 무신사 에디션 코너에 걸렸다.

7월 23일부터 무신사 홈페이지와 앱에

서 판매를 시작한 '동아일보x오가프 모자'는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무신사에서 동아일보라니 진짜 신박 그 자체다", "동아일보를 여기서 왜? 하고 들어왔는데 아주 트렌디하고 예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신문이 주는 아날로그하고 진지한 느낌이 스트리트 패션의 자유로움과 절묘하게 조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이번 협업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동아일보 헤리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문, 잡지가 갖는 레거시 미디어의 감성을 MZ세대 취향에 맞게 재해석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 양민석

특파원 소식

차기 워싱턴 특파원 신진우
도쿄 특파원 황인찬-송찬욱
최주현 현 워싱턴 특파원 1년 연장



편집국 신진우 차장



편집국 황인찬 부장



보도본부 송찬욱 차장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채널A가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를 담당할 새 해외 특파원을 선발했다. 3년 임기의 차기 워싱턴 특파원과 도쿄 특파원에는 신진우 편집국 정치부 차장과 황인찬 편집국 문화부장이 각각 선발됐다. 도쿄 단기 특파원은 송찬욱 보도본부 사회부 차장이 선발됐고, 최주현 현 워싱턴 특파원의 임기는 1년 연장됐다.

수상소식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8기팀
'이달의 기자상'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8기팀(김호경 김소영 김태연 서지원 위은지 홍진환 이승건 황준하 김종민)의 '트랩-돈의 뒤편에 걸리다' 시리즈가 7월 25일 한국기자협회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취재팀이 새 휴대전화 62개를 개통하고, 불법 대부업체를 일일이 검증한 취재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허동준 기자, 중앙대 '중앙의혈언론인상' 수상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린 공로를 인정 받았다.

편집국 사회부 허동준 기자(사진)가 7월 17일 열린 2024년 중앙대인문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혈언론인상을 수상했다. 허 기자는 전현직 검사들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거 출마하는 점을 기획 보도함으로써 법조계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린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형기 흥진환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기자 '한동훈의 골든아워'



DX본부 흥진환 기자 '외국인이 만든 한글 과자'

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기자가 '한동훈의 골든아워'로 7월 22일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관한 제258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포토레이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 중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을 포착했다. 박 기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이준하 상병을 담은 '가족 품으로 보낼 그날 위해' 사진으로 피쳐 부문 우수상도 수상했다. 또 DX본부 흥진환 기자는 '외국인이 만든 한글 과자'로 포토레이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미선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신뢰받는 언론사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문제해결을 통해 조직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야구입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과 도전이라는 요소들이 긴장감을 주고 승리를 하면 짜릿한 희열을 느껴 스포츠에 관심이 워낙 많고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일에도 야구관람을 하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클라이밍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③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임예린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새로운 회사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동료분들에게 아무진 직원으로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② 제 요즘 관심사는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 후에 약간의 근력도 생기고, 자세 개선과 코어 강화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③ SK텔레콤



김정민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안녕하세요. 채널A 협력지원팀에 입사하게 된 김정민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② 최근 야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관람하며 느꼈던 재미와 분위기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꼭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선준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안녕하세요. 채널A에 입사한 이선준입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한만큼 저를 발전시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어 사내 직원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요즘 저의 관심사는 운동입니다. 회사에서 적응하기 위해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운동에 더욱 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다솜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안녕하세요. 구매관리팀에 입사하게 된 전다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채널A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항상 성실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요즘 영화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사이드 아웃2를 봤는데 귀엽고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재밌고 귀여운 영화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